

『요코 이야기(竹林はるか遠く)』 고찰*

- 일본인관과 조선인관을 중심으로 -

노윤선**
ysroh1008@naver.com

<目次>

- | | |
|------------------------------|-------------------------|
| 1. 서론 | |
| 2. 본론 | 2.2.2 보통의 일본인은 피해자임을 강조 |
| 2.1 일본의 전시(戰時) 패전(敗戰) 상황묘사 | 2.2.3 가족애 |
| 2.2 일본인관 | 2.3 조선인관 |
| 2.2.1 태평양전쟁에 대한 일본 정부로의 책임전가 | 2.3.1 조선인에 대한 일본인의 묘사 |
| | 3. 결론 |

主語語: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Yoko Kawasima Watkins), 『요코이야기』(So far from the Bamboo Grove), 태평양 전쟁(The Asia-Pacific War), 히키아게(Hikiagae), 혐한(Anti-Korea(n) Sentiment)

1. 서론

우리나라에서 2005년에 번역 출간된 『요코 이야기』¹⁾는 2007년에 관심을 불러일으킨 작품이기도 하다. 이 작품은 1986년 4월 미국에서 *So far from the Bamboo Grove*²⁾라는 제목으로 제일 먼저 출판되었으며, 작자의 히키아게(引揚げ) 체험을 바탕으로 쓴 자전 소설³⁾이다. 히키

* 이 연구 성과는 2018년도 BK21 플러스 고려대학교 2030년 글로벌 동아시아학을 선도하는 중일 언어·문화 교육·연구 사업단의 참여학생으로서 작성한 것임.

** 고려대학교 중일어문학과 박사수료

1)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2005)『요코 이야기: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 장편소설』문학동네. ('발언권이 없었던 또 다른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로 "일본민족=가해자, 우리민족=피해자'라는 기존의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없었던 '여성에게 가해지는 전쟁폭력'의 문제"를 다루어 "분명 우리와 다른 시각과 다른 생각이 담겨 있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사회와 역사를 성찰하는 데 참고할 만한 요소가 적지 않다. ('요코 이야기' 사태에 대한 문학동네의 입장', 2007.1.24, 문학동네 홈페이지))

2) Watkins, Yoko Kawashima(1994)*So far from the Bamboo Grove : by Yoko Kawashima Watkins 1st Beech Tree ed.*Beech Tree Books

3) 자전 소설은 수용적 측면에서는 '진실'이라고 믿고 싶어 하는 욕구가 존재하고, 발화적 측면에서는 '미화'하고 싶은 욕망이 존재한다.

아계는 일본의 태평양전쟁 패전 후, 국외에 살고 있던 일본인들이 고향으로 귀환하는 역사 사실을 일컫는다. 일본어판은 2013년 7월 19일이 되어서야 『竹林はるか遠く：日本人少女ヨーコの戦争体験記』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지만, 중국에서는 출판을 금지되었다. *So far from the Bamboo Grove*는 미국의 한국계 학생이 문제를 제기하고 수업을 거부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한국계 학부모들과 주미한국 외교기관에서는 여러 학교와 교육위원회 관계자들에게 이 책의 교재채택을 재고해줄도록 요청하는 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 작품은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출판되었을 당시 책 속에 포함된 역사 왜곡 사실이 문제시 되어 출판물이 회수되기도 하였다. 『요코 이야기』 속의 역사 왜곡과 작가의 민족주의에 관해서는 윤상인이 이미 지적한 바가 있다.⁵⁾ 또한, 2007년 7월 14일 ‘한일, 연대21’ 주최로 열린 <가해와 피해의 기억을 넘어서>라는 심포지엄을 통해 『요코 이야기』가 일으킨 파문이 논의의 초점으로 등장하였다. 요네야마 리사(米山リサ)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샌디에이고) 교수는 「아시아계 미국인과 일본의 전쟁범죄」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는데, “……한 개인의 체험을 넘는 커다란 역사의 맥락에 대한 언급이나 이해, 역사의 비판적 검토나 성찰과 같은 것이 텍스트와 작가에 대해서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하였다.⁶⁾ 실제로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둘 다 겪은 재미교포 작가인 최숙렬씨는 이 책을 읽고 매우 분노하였으며, 역으로 자신이 어린 시절 직접 보고 겪은 일제의 만행과 남북분단의 과정을 자세히 다룬 책 『떠나보낼 수 없는 세월』을 영어로 써내기도 하였다. 또한 문학평론가인 손종업은 작품 속 열두 살 소녀의 시선이 결국은 “패전 후 일본국민이 지니게 된 피해담론을 정교화 하는 것일 뿐”⁷⁾이라며 비판하였다.

태평양전쟁을 전후로 조선에서 살았던 일본인이 바라보는 일본인관과 조선인관에 대한 선행연구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작품 『요코 이야기』 속에 나타난 일본인관과 조선인관에 대해 살펴보고, 궁극적으로는 일본인에 대한 한국인의 폭력 장면 등 작품 속에 내재 되어있는 혐한 인식에 관해 재고해 보고자 한다.

4) ヨコ・カワシマ・ワトキンズ(2013)『竹林はるか遠く：日本人少女ヨーコの戦争体験記』株式会社ハート出版

5) 윤상인 외(2006)『일본문화의 힘: 세계는 왜 J컬처에 열광하는가』서울: 동아시아, pp.47-72; 윤상인(2009)『문학과 근대와 일본』문학과 지성사, pp.286-314

6) 米山リサ(2008)「日本植民地主義の歴史記憶とアメリカ:『ヨウコ物語』をめぐって」『東アジア歴史認識論争のメタヒストリー:「韓日、連帯21」の試み』青弓社

7) 손종업(2005)「『요코 이야기』가 불편한 몇 가지 이유」『창작과 비평』2007년 여름호, p.354

2. 본론

『요코 이야기』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조선 북쪽의 나남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던 주인공 요코 가와시마는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패전하자 식민지인 조선에서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피난민이 되었다. 그녀의 오빠 히데요는 군수공장에 고용되어 있어 가족과 헤어지게 되고, 오빠 역시 피난민이 되어 일본군과 조선인 양쪽을 피해 다닌다. 그녀의 가족들은 서울과 부산을 거쳐 배를 타고 일본으로 귀환할 때까지 조선인들로부터의 위협과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12살인 요코와 17살인 그녀의 언니,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가 후쿠오카(福岡)에 도착하자 그들은 어머니가 자랐던 교토(京都)로 이동하고, 교토에 도착한 후 어머니는 조부모가 있는 아오모리(靑森)를 향해 도움을 요청하러 떠난다. 그러나 조부모는 폭격으로 인해 이미 오래전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다시 교토로 돌아와 요코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전한 어머니는 끝내 역에서 숨을 거두게 된다. 어머니의 사망 후 악재 속에 전전공공했던 요코 자매는 이윽고 몇 달 뒤 오빠 히데요를 만나 한자리에 모이게 되고, 히데요는 그가 어떻게 북조선에서 탈출해 일본으로 귀환할 수 있었는지의 과정을 이야기해 준다.

앞서 언급했듯이 『요코 이야기』는 히키아게를 했던 시점인 1945년 8월 15일로부터 약 40여년이 지난 1986년에 쓰인 작품이다. 작가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1933~ Yoko Kawasima Watkins)는 미국에 거주하는 일본계 미국인이다. 『요코 이야기』는 작품의 배경이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이 패전한 전후의 시점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소련 및 중국 등과 벌인 제국주의 전쟁과 조선을 식민지화하고 조선의 항일세력을 말살하기 위해 벌인 수많은 전쟁은 『요코 이야기』 속에 등장하지 않는다.

작품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글 번역본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본문 전체 287페이지 중에서 처음부터 174페이지까지(일본어 번역본의 경우, 전체 225페이지 중에서 처음부터 134페이지까지)는 1945년 7월 29일 밤부터 1945년 9월 말경 부산항을 떠나기까지의 과정을 회상한 것이다. 그 뒤의 내용은 1947년까지 교토에서의 생활을 시간 순서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은 1945년 당시 12살의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와 그녀의 언니, 그리고 엄마의 귀환 과정을 주로 묘사하면서 중간 중간에 그녀의 오빠가 북조선에서 어떻게 귀환했는지를 자신들의 귀환 과정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2.1 일본의 전시(戰時) 및 패전(敗戰) 상황 묘사

오래전부터 학교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3교시를 마치면 모든 수업이 끝이었다. 남자 선생님들은 군복을 입었다. 도조 수상의 명령에 따라 여자들은 발목을 동여맨 황갈색 바지에 단순하게 재단된 긴소매 블라우스로 이루어진 국민복을 입어야 했다.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였다. 학교 일과 중에는 군대를 지원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었다. 빈 강통을 모은다든지, 병기장에서 뿔뿔한 군용 장갑을 끼고 큰 상자에 담긴 못 쓰는 총알을 골라낸다든지 하는 일이었다.

(각주1,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2005), p.21)

近頃、学校はすっかり変わってしまっていた。男の先生は国民服を着ていた。東条首相の命令で、女の先生も女子学生もカーキ色のもんぺに質素な長袖の服といった標準服を着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戦時中のため授業は三時間だけで、その後は、軍隊のために勤労奉仕をするのが日課になっていた。空き缶を集めたり、弾薬施設に行き、軍手をはめて大きな箱から缺陷のある弾丸を選別したりした。

(각주4, 요코·카와시마·왓킨즈(2013), p.14)

태평양전쟁의 전시상황을 주인공이 학교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간접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더욱이 학교에서 군복을 입거나 국민복을 입고, 못 쓰는 총알을 골라낸다는 것은 현대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시시각각으로 전쟁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과외활동을 계속해야 했다. 서예뿐 아니라 다도, 꽃꽂이, 시 짓기, 독서, 일본 전통무용 등 부모님은 우리가 배우는 그 어느 것 하나도 그만두지 못하게 했다.

(각주1,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2005), p.24)

両親はたとえ戦争中であっても、私に習字だけでなく、人をもてなし歓迎する茶道、華道、詩歌の詠み書き、そして日本舞踊などの特別な稽古を続けさせていたのである。

(각주4, 요코·카와시마·왓킨즈(2013), p.16)

오월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던 중이었다. 사흘이나 연달아 먹고 있는 당근과 두부 요리가 지겨워 나는 반찬 투정을 하기 시작했다.

(각주1,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2005), p.35)

それから数週間後の五月のある日、私たちが夕食を食べていたときのことである。私は三日間も食べ続けている人参と豆腐の煮物に文句を言っていた。

(각주4, 요코·카와시마·왓킨즈(2013), p.24)

전쟁의 험난한 분위기 속에서도 주인공의 집안은 다시 일본에 돌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하기에 일본에 돌아갔을 때 도움이 될 만한, 남들에게 뒤쳐지지 않기 위한 과외활동을 여러 개 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렇듯 다양한 과외활동과 더불어 반찬투정을 한다는 것은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의 집안이 물질적·정신적인 여유가 아직 남아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에서 거주한 일본인들이 풍요로운 생활을 누렸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매일 사이렌이 울렸다. 집에 있을 때면 우리는 비상 배낭을 움켜쥐고 방공호로 뛰어들었다. 학교 바깥에서 일하고 있을 때 공습이 시작되면, 땅바닥에 찰싹 몸을 붙였다. 미군 폭격기들은 언제나 편대를 지어 날았다. 에노모토 선생님은 그 폭격기들이 도쿄를 비롯한 일본의 큰 도시들을 공격했던 B-29인 것 같다고 했다. 비행기들이 날아올 때마다 나는 우리 마을도 온통 불바다가 되고, 우리도 다 타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다.

.....밤마다 경보 사이렌 소리에 잠을 깼다. 집 안이나 바깥이나 모두 캄캄했기 때문에 야간 공습은 더욱 무섭게 느껴졌다. 밤이면 비행기들은 아주 낮게 날면서 폭탄을 퍼부었다. 온 세상을 뒤흔들어 놓는 듯했다. 우두두둑..... (각주1,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2005), p.38)

今や私たちは来る日も来る日も空襲警報を聞いていた。家にいるときに鳴れば、大急ぎで避難袋を持って防空壕へ走った。外で勤勞奉仕をしているときは、地面に這いつくばった。アメリカの爆撃機はいつも編隊を組んで飛んでいた。榎本先生は、「あれは母国の東京や主な都市を攻撃したのと同じB-二九のようだ」と言った。飛行機が飛んでくる度に、私はこの町も火の海に変わり、私たちも焼死するのではないかと脅えていた。

(각주4, 요코·카와시마·왓킨스(2013), p.26)

.....毎晩のように空襲警報に起こされた。家の中も外も暗いので、夜の空襲は余計に不気味だった。夜間飛行はとても低空を飛ぶので、まるで地球全体を揺り動かされているように思われた。竹が二つに折れんばかりの鋭い音を立てることもあった。

(각주4, 요코·카와시마·왓킨스(2013), p.27)

여기서 언급된 미군 폭격기 ‘B-29’는 실제 태평양전쟁 때 사용된 미군 항공기이다. 그리고 1945년 3월 9일~10일에 일어난 도쿄 대공습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한 발씩 투하한 기체이기도 하다. 더욱이 ‘우리 마을 혹은 この町’가 가리키는 곳은 조선의 땅이다. 당시 조선의 땅을 일본이 식민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군 항공기가 조선까지 불바다로 만들고 조선인까지 억울하게 타죽게 만들었음에도 도쿄대공습에 대한 언급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 지극히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급한 일이라 저도 있는 힘을 다해 달려온 겁니다. 러시아 군인들⁸⁾이 상륙했다니까요. 그들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여러분을 찾고 있던 말입니다. 잡히면 죽을지도 몰라요.”⁹⁾

“왜요?”

“남편분 때문이지요. 만주에서 일본 정부를 위해 일하고 계시니까요.”

……“서울역 앞에서 만나자는 쪽지를 하나 남겨두고 떠나십시오.”

(각주1,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2005), p.46)

「まもなくソ連兵が上陸してきて、きっと皆さんを探しに来ます。ここに残っていは殺されてしまうでしょう」

「どうして?」

「ご主人が満州で日本の利権のために仕事をしているからです」

……「京城(現在のソウル)駅で待っていると、書置きを残して下さい」

(각주4, 요코·카와시마·왓킨즈(2013), p.33)

곧 공산군들이 조선 땅에 들이닥칠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장면이다. 작가의 아버지가 만주에서 일본 정부를 위해 고위 관리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군들과 뒤에 나오는 인민군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기도 하다. 또한 전쟁의 양상이 바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인공들은 조선의 북동쪽인 나남에서 서울역으로의 피난 이동을 예견하고 있다.

마침내 역이 보이는 곳까지 왔다. 대낮 같은 불빛이 역 광장을 환히 밝히고 있었다. 그러나 그 밝은 불빛 아래 드러난 광경에 너무 놀란 나머지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병원 트럭과 군용 트럭들이 마구 뒤엉킨 채 역 광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각주1,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2005), p.55)

ようやく明々と電気が灯っている駅が視界に入ってきた。しかし、明かりに浮かんだその光景は私に強い衝撃を与え、眠気が完全にふっ飛んだ。そこには病院や軍のトラックがぎっしりと止まり、衛生兵や民間医療班が負傷した兵隊たちを担架でプラットホームへ運んでいた。

(각주4, 요코·카와시마·왓킨즈(2013), p.41)

8) 소련군이 맞는 표현이지만, 한국어판에서는 러시아 군인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 본고에서는 그대로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9) “I came as fast as I could to warn you,” the Corporal told her.

“The Russians are landing. They will be looking especially for you and your family. They will kill you.” (각주2, Watkins, Yoko Kawashima(1994), p.21) 영문판과 일본어 번역판의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추후 3개 국어판의 내용을 비교해서, 어떤 내용이 빠졌는지 분석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문학평론가인 손중엽의 『『요코 이야기』가 불편한 몇 가지 이유』, 『창작과 비평』2007년 여름호를 참고할 수 있다.

기차는 짙은 어둠을 뚫고 계속 달렸다. 아무리 창밖을 내다봐도 보이는 거라고는 어둠뿐이었다. 나는 배낭을 다리 사이에 끼운 다음 그 위에 머리를 얹고 잠이라도 좀 자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사나운 바람 소리에다 환자들의 끄끙 앓는 신음 소리 때문에 제대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각주1,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2005), p.65)

暗闇が列車をすっぴりと包み込んだので、私はまるで飛んでいるように流れる景色を見ることが出来なくなった。荷物を足の間に置き、その上に頭を乗せて少し眠ろうとしたが、風の音と病人のうめき音に妨げられた。

(각주4, 요코·카와시마·왓킨즈(2013), p.47)

작가와 작가의 언니 그리고 어머니가 먼저 피난길에 오르면서 고생 끝에 서울역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느낀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다. 당시 조선의 서울역은 일본의 식민지배로 인해 병원 트럭과 군용 트럭들로 가득 차 있었고, 간신히 몸을 실은 기차 안은 어둠과 환자들의 앓는 소리들로 가득 차 있어 전쟁의 참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처럼 철길을 따라 걷고 있는 수많은 조선인들과 일본인들을 만나게 되었다. 여자들과 아이들도 있었다.¹⁰⁾

“이보게. 자네들은 일본인인가, 조선인인가?”

히데요네와 동행하게 된 한 노인이 일본말로 말을 걸었다.

“너희들은 조선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공산당은 아니에요”

경계심을 풀지 않은 히데요가 조선말로 대답했다. (각주1,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2005), p.111)

日が経つにつれ、多くの朝鮮人や日本人、女性や子供が、線路を歩いているのが目立ち始めた。

「おい！ 君たちは日本人？ それとも朝鮮人？」

年老いた男性が、日本語で訪ねた。彼は淑世らと一緒に歩いた。

「僕たちは朝鮮人です。でも共産軍の一員じゃありません」

淑世は、注意深く朝鮮語で答えた。 (각주4, 요코·카와시마·왓킨즈(2013), p.84)

“끔찍 마!”

서툰 조선말로 누군가 소리 질렀다. 맞은편 수풀에서 러시아 군인 두 명이 기관총을 멘 채 뛰어나오고 있었다.

.....“너희들은 인민군인가?” 러시아 군인이 물었다.

“예, 그렇습니다!” 모두 동시에 대답했다. (각주1,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2005), p.115)

「止まれ！」

10) As the days passed, they began to see numbers of Koreans, or Japanese, children as well as woman, walking on the rails. (각주2, Watkins, Yoko Kawashima(1994), p.61)

誰かが下手な朝鮮語で叫んだ。反対側の茂みから二人のソ連兵が銃を持って走って来た。

(각주4, 요코·카와시마·왓킨즈(2013), p.87)

……「お前たちは朝鮮共産軍の人間か?」ソ連兵の問いに、青年たちは同時に答えた「そうです!」

(각주4, 요코·카와시마·왓킨즈(2013), p.88)

태평양전쟁 중 피난 상황에서 일본인과 조선인에 대한 구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선인 안에서도 공산당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작가의 오빠인 히데요는 공산당인 소련군들과 인민군들이 아버지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인 본인 또한 충분히 노리고 있을 것이라 여긴다. 그래서 스스로 공산당이 아님을 조선말로 밝혀야 하는 조선에서의 전시 상황을 작가는 작품 속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주인공들이 조선말로 조선인인척 하는 장면들은 새로운 장소로 이동할 때마다 작품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다.

뚱뚱한 (일본)경찰이 이제 어디로 갈 거냐고 마지막으로 물었다. 북쪽에서 아들이 올 때까지는 여기 서울에 머물러야 한다고 어머니가 대답했다. 전쟁이 끝나는 대로 다시 나남으로 돌아갈 거라는 말도 덧붙였다.

경찰이 내뱉듯이 말했다. “전쟁은 이미 끝났소.”

우리는 모두 그만 낮이 빠져버렸다. “예? 언제요?” 다그치듯이 언니가 물었다.

“어제였소. 그러니 이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많은 피란민들이 북쪽에서 내려 오고 있는 거요. 이제 일본인들은 조선 땅에서 위험한 신세가 됐어요.”

(각주1, 요코 가와시마 왓킨즈(2005), pp.132-133)

……“일본은 패망했소. 나가사키와 히로시마는 지금 지옥이나 매한가지요.” (각주1, p.133)

最後に、太った警察官が、これからどこに行くのかと尋ねた。母は、息子が着くまで京城に留まり、戦争が終わったら、羅南に戻るつもりだと話した。

「戦争は終わった」と彼は言った。

私たちは驚きのあまり呆然としていた。「いつ?」好は聞いた。

「昨日だが、君たちは羅南には帰れない。今、朝鮮では、日本人は危険な状況下に置かれている。だから、北からこれほど多くの人たちが避難しているのだ」

(각주4, 요코·카와시마·왓킨즈(2013), p.102)

…「日本は負けた」背の高い警察官が教えてくれた。

「広島も長崎も地獄そのものだ」

(각주4, 요코·카와시마·왓킨즈(2013), p.103)

작품 속의 주인공들은 태평양전쟁에 일본이 진 것조차도 모르고 계속 피난길에 오르고

있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일본경찰과의 대화내용이다. 일본경찰은 태평양전쟁이 끝남으로 인해, 즉 일본이 패전(敗戰)함으로 인해 일본인 피난민들이 북쪽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으며, 이제 일본인들은 조선 땅에서 위협한 신세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다. 당시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보는 시선과 현재 작가의 한국인에 대한 시선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작품 속에서 이와 같은 험한 부분은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별도의 장으로 마련하였다. 또한 나가사키와 히로시마는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에서 자칫 일본이 피해자라는 것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하다.

마침내 사흘째 되는 날, 기차가 부산역에 닿았다. 부산역도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우리는 항구 옆의 창고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여기서 우리 아들을 좀 기다리면 안 될까요?”

어머니가 조선인 관리에게 물었다.

“그럴 수 없소. 이제 곧 여기서 조선의 독립기념식을 할 예정이오. 그러니 어서 가시오.”

……독립을 기념하려는 사람들이 역으로, 역으로 몰려들고 있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오늘을 위해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은 조선 사람들이 깃발을 흔들면서 거리를 가득 메웠다. 사진을 찍고 있는 미국 군인들도 보였다.¹¹⁾ (각주1,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2005), p.150)

三日目に、ついに列車は釜山駅に到着した。駅は満員だった。私たちは港の近くの倉庫に行くように命じられた。

「私は駅で息子を待たなければいけないのですが」

(각주4, 요코·카와시마·왓킨스(2013), p.115)

母は朝鮮の係員に話した。

「駄目だ 我々はここで独立祝賀会を聞く。出て行け!」

……国旗を持った!あらゆる年齢層の朝鮮人が一張羅を着て駅の祝賀会に向かっていた。カメラを持ったアメリカ軍人もいた。 (각주4, 요코·카와시마·왓킨스(2013), p.116)

일본의 패전 후, 일본인 피난민들은 부산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부산역에 도착 후 주인공의 어머니가 아들을 역에서 기다리고 싶다고 조선인 관리인에게 말하지만, 조선인 관리인은 일본인의 요청을 매몰차게 거절하는 장면이다. 그러나 작가가 당시 ‘타인에 대한 이해심’을 통해 조선인의 입장에서 바라보았다면, 오랫동안 너무나 간절하게 바래왔던 조선의 독립기념식에 일본인이 있는 것을 원치 않은 어찌 보면 당연한

11) Koreans of all ages, dressed in their best and carrying flags, were heading for the celebration at the station, and there were American soldiers too, with cameras. (각주2, Watkins, Yoko Kawashima(1994), p.85)

것이었을 것이다.

“저기다, 막둥아. 바로 저기가 일본이야.”

……드디어 우리나라에 온 거야. 우리를 환영하고 안전하게 지켜줄 우리나라에 오게 된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과 편안한 잠자리도 마련해주겠지.

(각주1,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2005), p.175)

……그러나 지금 폐허가 되다시피 한 후쿠오카의 풍경은 내게 말할 수 없는 충격을 안겨주었다. 불타버린 들판, 무너진 집들과 건물들, 심하게 타버려 가지하나 없이 고통스럽게 서 있는 나무들.

(각주1,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2005), p.176)

……게다가 우리를 대하는 저 남자의 태도는 또 어떤가. 그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도대체 왜 왔소? 우리는 당신들 없이도 잘살고 있는데.”

(각주1,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2005), p.177)

……그러나 그날 밤 나는 몇 번이나 잠이 깰는지 모른다. 누군가 우리를 덮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눈을 뜨기도 했고, 우리 물건들을 다 훔쳐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이 나서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앉기도 했다. 화장실에 갈 때도, 그곳에 남자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자는 언니를 깨워야 했다.

(각주1,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2005), p.179)

……그건 정말이지 또 다른 세계였다. 역에는 피란민들, 거지들, 부상병들, 소매치기들, 고아들, 창녀들이 기차역을 집 삼아 득시글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몇 발 떨어진 곳에서는 근사한 옷을 입고,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직장을 향해 가고 있었다.

(각주1,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2005), p.186)

「あれが私たちの祖国よ、小っちゃいの」

……自分たちの国へ上陸し、歓迎され、何の危険もなくなるだろう。祖父母は、食べ物と上等な布団を用意してくれるだろう。

(각주4, 요코·카와시마·왓킨즈(2013), p.136)

……ここ数年、私は母国の素晴らしい景色とそこに住む陽気な人々を見ていたが、この破壊された博多の町を見て、私は完全に打ちのめされた。

(각주4, 요코·카와시마·왓킨즈(2013), p.136)

焼け野原、崩壊した家や建物、木々は枝をなくし、燃えた傷跡を残して痛々しく立っていた。

(각주4, 요코·카와시마·왓킨즈(2013), p.137)

さらに、私たちがそれまで会った男たちの態度は、

「何しに来た? お前たちなど帰って来なくていいのに、」

と言っているかのようだった。

(각주4, 요코·카와시마·왓킨즈(2013), p.137)

……ときどきハッとして目が覚め、誰かが私を襲ったり、所持品を盗んだりするのではないかと心配して怖かったので、好を起こした。

(각주4, 요코·카와시마·왓킨즈(2013), p.138)

……彼らは私たちとは別世界の人たちだった。

駅の中には、私たちのような引揚者の他、こじき、負傷兵、すり、孤児、売春婦などがいて、ここで生活しているというのに、ほんの少ししか離れていないところでは、帰る家のある人々がきちんとした身なりをして、平和そうに仕事に出かけて行くのだ。

(각주4, 요코·가와시마·와킨즈(2013), p.143)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떠세요?”

어머니는 힘이 하나도 없는 듯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각주1,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2005), p.207)

“폐허가……되어버렸더구나. 죄다.”……

“너희들의 외조부모님도 친조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말았어. 칠월에 있었던 폭격에.”

(각주1,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2005), p.208)

「おじい様、おばあ様はどうだったの?」

母は弱々しく首を振ると、

「七月の空襲で皆、死んでしまったわ。お父様のご両親も」……

「何もかも焼けてなくなってしまったの」 (각주4, 요코·가와시마·와킨즈(2013), p.161)

주인공들은 고국인 일본에 돌아가면, 자국민들에게 환영받을 것이고 조선의 땅에서 받았었던 위협이나 공포는 없을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산산이 부서진다. 후쿠오카는 폐허가 되어있었으며, 오히려 주인공들은 일본인들로부터 왜 돌아왔나는 눈치를 받게 된다. 잠자리에서 불안에 떠는 것 또한 조선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게다가 패전 후 일본거리의 명암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들은 주인공들을 적잖이 놀라게 만든다. 그리고 주인공들에게 맛있는 음식과 편안한 잠자리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할머니와 할아버지, 외조부모, 친조부모는 전부 미군의 공습으로 인해 죽게 되어 주인공들의 마지막 기대마저도 사라지게 된다.

2.2 일본인관

2.2.1 태평양전쟁에 대한 일본 정부로의 책임전가

『요코 이야기』의 작품배경은 태평양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주인공들은 전쟁의 모든 책임을 일본 정부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는 모습을 작품 내에서 발견할 수 있다.

집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드나들 수 있는 현관에 네 명의 일본 경찰이 군화를 신은 채 불쑥 들어섰다.…… 혐악하게 생긴 한 경찰이 어머니에게 명령했다. (각주1,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2005), p.17)

“우리는 지금 쇠붙이들을 모으는 중이다. 철이나 구리, 금, 은 이런 것들 말이야. 있는 대로 다

내와.” (각주1,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2005), p.18)

……“정부가 전쟁 물자를 조달하느라 혈안이 돼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¹²⁾

(각주1,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2005), pp.20-21)

……憲兵が四人、來客専用の玄関から靴もぬがずにドクドクと入って来た。

いかにもいじわるそうな憲兵が、

「金属はすぐに供出するように。鉄、銅、銀、それから金も」と母に言った。

(각주4, 요코·카와시마·왓킨즈(2013), p.12)

……「政府は弾丸の材料不足でやっきになって集めているんでしょう。……」

(각주4, 요코·카와시마·왓킨즈(2013), p.14)

“우리나라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진주만을 공격한 건 하나도 잘한 것이 아니야. 우리 정부가 내렸던 이 결정에는 아버지도 동의하지 않으신다.”……

“전쟁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있잖니. 평화라든지 사랑 행복 같은 것들 말이다. 남편이나 아들을 잃느니, 차라리 우리나라가 지는 걸 보는 편이 낫겠다!”

(각주1,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2005), p.40)

「東条内閣が真珠湾を攻撃し、戦争を始めたのが一番悪いのよ。お父様は日本政府のやり方に反対なのに……」

「政府は私たちの平和、愛、幸せの全てを奪っているわ。夫や息子を失うくらいなら、国が戦争に負ける方がずっとましだわ」

(각주4, 요코·카와시마·왓킨즈(2013), p.28)

태평양전쟁 중, 주인공들의 집에 험악하게 생긴 일본 경찰들이 주인의 허락도 없이 쳐들어 와서 전쟁 물자들을 조달하는 장면이 나온다. 또한 일본 정부가 내린 진주만기습을 주인공들이 부정하고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작가의 아버지는 실제로 일본 정부의 고위 관리였음에도 진주만기습을 동의하지 않았다는 확인 불가능한 내용까지 나오고 있다.

주인공들은 즉 보통의 일본인들은 평화·사랑·행복을 원했지만, 일본 정부가 전쟁을 일으킨 것이라면서 모든 전쟁에 대한 책임을 일본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작가는 작품 속에서 평범한 일본인들은 전쟁에 대한 책임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억울한 피해자임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보통의 일본인들은 조선의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할 필요성과 의무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12) “The government must be desperate for supplies to make ammunition……” (각주2, Watkins, Yoko Kawashima(1994), p.5)

2.2.2 보통의 일본인은 피해자임을 강조

앞서 언급했듯이, 『요코 이야기』 작품 속에서는 모든 전쟁에 대한 책임을 일본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일본인들은 전쟁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는 피해자임을 작품 속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 군데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통의 일본인들 역시 조선에 거주하면서 누린 것들을 살펴보면, 조선인들의 집과 토지를 수탈하여 그것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본은 1910년부터 1918년 동안 진행된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토지를 수탈하였고, 이를 일본에서 넘어온 이민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넘겼다. 따라서 조선에 거주하게 된 보통의 일본인들이 피해자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또한 현재 광복 73주년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토지조사사업 등을 비롯하여 불법적으로 수탈해 간 토지는 여전히 우리나라에 100% 귀속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므로 당시 일제식민지 시대의 보통의 일본인들이 식민지인 조선인들에게 저지른 피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것이다.

조선의 북동쪽에 살고 있었지만, 우리는 일본인이었다. 기억에 없는 내 나라 일본은 사 년간이나 미국과 영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었다.¹³⁾ 아버지가 일본 정부의 관리로 만주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조선의 이 오래된 마을인 나남에서 자라게 되었다. 우리 집은 만주 국경으로부터 약 팔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고,……

(각주1,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2005), p.17)

私たちは日本人で、朝鮮北部に住んでいた。私は未だ祖国を見たことがなかった。父は満洲鐵道で働いていたので、私は満洲の国境線から八十キロ程離れたこの古い町で育った。……

(각주4, 요코·가와시마·왓킨즈(2013), p.11)

『요코 이야기』 작품 속에서 태평양전쟁에 대한 전후배경 설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영문판과 한국어 번역본에만 단지 막연하게 일본이 4년 동안 미국과 영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라는 언급만 있을 뿐, 일본어 번역본에는 그것조차 번역 과정에서 삭제해 버렸다. 따라서 2013년에 일본어 번역판이 나온 이유는 일본의 패전 후 전쟁범죄에 대한 회석과 역사 왜곡의 도구로 『요코 이야기』가 활용되는 것이 아닌지 의국심이 드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오히려 다음과 같이 작가 자신이 겪은 고통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작품 구성이 채워져 있다.

13) My country, Japan, which I had never seen, had been fighting america and Britain for four years. (각주2, Watkins, Yoko Kawashima(1994), p.2)

……미국 비행기 세 대가 우리 머리 위를 줄지어 날아가는 중이었다. 그때 갑자기 “당장 고개 숙이지 못해!”하고 담임 선생님이 고함을 질렀다. 겁에 질릴 정도로 무섭고, 화가 단단히 난 목소리였다.

(각주1,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2005), p.23)

……編隊を組んで飛んでいくアメリカの飛行機が三機、はっきりと見えた。榎本先生が、私に「頭を下げろ!」と叫んだ。それは、怒りと恐怖の叫び声だった。

(각주4, 요코·카와시마·왓킨스(2013), p.16)

나는 지난 사월 일본으로부터 날아든 끔찍한 소식을 떠올렸다.……선생님은……지시 사항을 다 알려주고 나서도 잠시 동안 창백하고 굳은 표정으로 서 있기만 하던 선생님이 이윽고 어렵게 입을 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 참 슬프구나. 미군 폭격기가 도쿄를 공격했단다. 지금 도쿄는 거의 다 파괴되었다는구나.……”

……“정오 뉴스를 듣기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한다. 도쿄는 지금 불바다가 된 모양이다.”

(각주1,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2005), p.25)

私は四月に祖国から届いた恐ろしいニュースを思い出していた。

……榎本先生は私たちに掃除当番を済ませるように念を押し、それから青白い深刻な顔でそのニュースを発表した。

「あなたたちに言うのはとてもつらいのですが、アメリカの爆撃機が東京を襲い、街は破壊されました。……」

……「お昼のニュースではほとんどの人が亡くなったということでした。東京は火の海だそうです」

(각주4, 요코·카와시마·왓킨스(2013), pp.16-17)

대낮의 수업 중에도 미군 비행기가 조선의 하늘을 날아다녔으며, 이에 일본인들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겁에 질린 생활을 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내용은 한마디 언급조차 없이, 1945년 3월 9일~10일 사이에 일어난 도쿄대공습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미군 폭격기의 도쿄대공습으로 인해 도쿄는 대부분 파괴가 되었고 불바다가 되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피해사실들만을 계속해서 열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할아버지는 남쪽으로 가시는 길인가요?”

히데요가 조선말로 노인에게 물었다.

“나는 일본으로 돌아갈 거네. 그럴 수만 있다면 말이야. 일본이 전쟁에 지다니……이런 통탄할 일이……”

히데요는 너무 놀란 나머지 하마터면 비명이라도 지를 뻔했다.

“전쟁에 지다니요? 그럼 전쟁이 모두 끝났다는 말씀입니까? 언제요?”

(각주1,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2005), p.111)

.....노인이 서툰 조선말로 대답했다.

“팔월 십칠일이네. 모든 게 다 끝장났어. 라디오에서 천황이 하는 말을 들었지.”

갈라지는 음성으로 노인은 말을 이었다.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엄청난 폭탄을 떨어뜨렸다는 이야기도 들었네. 다 끝난 거야!”

쭈글쭈글한 노인의 얼굴 위로 눈물이 강처럼 흘러내렸다.

(각주1,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2005), p.112)

「あなたは南に向かっているのですか?」

淑世はその男性に朝鮮語で訪ねた。すると、

「私は日本に帰るのだ! もしできたらの話だが…。日本が負けるなんて残念だ」

淑世は驚いて叫びそうになった。

「戦争に負けた? 戦争は終わった? いつ?」

.....「八月十七日」と老人は下手な朝鮮語で返事をした。

「終わったのだ。ラジオで天皇陛下の玉音放送を聞いた」彼の声はうわずっていた。

「そして、アメリカが広島と長崎に強力な爆弾を落としたりと聞いた。戦争は終わったのだ!」

(각주4, 요코·카와시마·왓킨즈(2013), p.85)

深いしわだらけの顔に涙がとめどもなく流れていた。

(각주4, 요코·카와시마·왓킨즈(2013), p.86)

이 부분은 작가의 친오빠인 히데요가 피난길에서 만난 노인 즉, 일본인 남자 두 명이 조선말로 일본의 패전 상황을 주고받고 있는 내용이다. 일본이 패전을 한 상황에서 조선의 땅에서 일본어로 대화를 하는 것은 어찌면 이들에게 신변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저변에 깔려있었기 때문이라는 작가의 의도가 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다는 내용은 작품 내에서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다.

엔진 두 개가 화염을 내뿜으며 타고 있었다.

.....“환자 수송용 기차나 배는 공격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국제법으로 정해진 거죠”

분노에 찬 군의관이 말했다.

(각주1,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2005), p.80)

二両の機関車から轟々と炎が上がっていた。

.....「赤十字をつけた列車や船を攻撃してはいけないことになっている。それが決まりなのに……」衛生兵は憤慨して付け加えた。¹⁴⁾ (각주4, 요코·카와시마·왓킨즈(2013), pp.57-58)

미군이 환자 수송용 기차의 엔진을 공격한 것에 대해 국제법을 어기고 있다고 일본인이 지적하고 있는 장면이다. 진주만 기습 등 일본군 또한 국제법을 어긴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일방적인 잘못만을 지적하는 모습은 『요코 이야기』의 작품이 보통의 일본인이 겪은 고통을 강조하는 것에만 치우쳐 사건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위에 언급한 일본군의 진주만 기습 이외에도 연합군에 대한 포로 학대 및 불법처형 등 일본군의 잔혹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또한 1942년 필리핀에서 미군과 필리핀 포로 7만 명을 강제로 행군시키는 과정에서, 구타와 굶주림 등으로 1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죽음의 바탄 행진’을 자행한 것 또한 일본군이였다.

서서히 멀어져가는 조선 땅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서 있는 언니의 뺨에 눈물이 흘렀다. 집을 떠나온 이후로 처음 보는 언니의 눈물이었다. 나는 도로 어머니 곁으로 가 가만히 앉았다. 얼룩진 어머니의 얼굴에도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있다. (각주1,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2005), p.160)

好は、ゆっくりと消えゆく朝鮮半島をじっと見つめていた。涙が頬を伝っていた。家を離れてから好が泣くのを始めて見た。私は静かに母に歩み寄って座ると、母の顔も涙がこらえられず、ぐしょぐしょになっていた。 (각주4, 요코·카와시마·왓킨스(2013), p.123)

“그래……다시는, 우리가 사는 동안 다시는 전쟁이 없기만을 바라는 수밖에.”

(각주1,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2005), pp.262-263)

「……私たちが生きている限り、もうあんな戦争が起らないようお願いしようよ」

(각주4, 요코·카와시마·왓킨스(2013), p.206)

태평양전쟁에 대한 일본 정부로의 책임 전가와 보통의 일본인은 피해자임을 가장 감성적이고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일 것이다. 작가의 언니와 어머니가 조선의 땅을 떠나면서 흘린 눈물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이다. 조선의 땅에서 위협과 공포에 시달리면서 끼니조차 제대로 때울 수 없었고, 제대로 씻거나 잠을 잘 수도 없었던 서러움, 친오빠와 아버지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 등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서 흐르는 눈물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이 『요코 이야기』 작품의 서술에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다시피, 작품 속 주인공들은 모든 전쟁의 책임을 일본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보통의 일본인들은 억울한 피해자이며, 전쟁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없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작품 속에서 주인공의 가정은 일본의 전쟁과 침략을 반대하는 견해로 묘사가 되어

14) “They were not supposed to attack a hospital train or ship. That’s the law,” said the medic, frustrated. (각주2, Watkins, Yoko Kawashima(1994), p.40)

있다. 이것은 모든 전쟁에 대한 잘못을 일본의 군인과 정치가에게만 돌리는 행태이며, 주인공 가족을 비롯한 보통의 일본인은 피해자라는 식으로 옹호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전쟁의 책임을 정부와 일반인으로 구분하는 것은 보통의 일본인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온 전형적인 일본식 평화주의의 일환이며, 나아가서는 일본의 역사 왜곡 논리의 근간이 되고 있는 것이다.

2.2.3 가족애

『요코 이야기』를 평화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반전(反戰) 작품으로 평가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가족애’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 다음은 미군의 폭격으로 인해 동경이 불바다가 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주인공이 울고 있는 다른 아이들을 가엾게 보긴 하지만, 정작 본인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동경과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안심이 된다는 내용이다.

“정오 뉴스를 듣기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한다. 도쿄는 지금 불바다가 된 모양이다.” 아이들이 삼시간에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그 아이들이 가엾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본의 북쪽 지방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안심이 되던지. (각주1,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2005), p.25)

「お昼のニュースではほとんどの人が亡くなったということでした。東京は火の海だそうです」
すずり泣きが聞こえ始めた。私はクラスメートたちがかわいそうだと思う反面、私の祖父母が東北に住んでいたのでほっとした。 (각주4, 요코·카와시마·왓킨즈(2013), pp.16-17)

주인공의 어머니는 가족을 잃는 것보다 고국인 일본이 전쟁에 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얘기하고 있다. 가족을 지키는 것에 평화와 사랑, 행복이라는 것을 더함으로 인해 가족을 지키는 것과 평화, 사랑, 행복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전쟁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있잖니. 평화라든지 사랑, 행복 같은 것들 말이다. 남편이나 아들을 잃느니, 차라리 우리나라가 지는 걸 보는 편이 낫겠다!” (각주1,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2005), p.40)

「政府は私たちの平和、愛、幸せの全てを奪っているわ。夫や息子を失うくらいなら、国が戦争に負ける方がずっとましだわ」 (각주4, 요코·카와시마·왓킨즈(2013), p.28)

주인공의 친오빠는 피난길을 떠나기 위해 마지막으로 집에 들러 챙겨야 할 물건들을 가방에 넣고 나오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 ‘오래된 가족 앨범’을 옆구리에 끼고 나오는 장면이 자세하

게 묘사되어 있다. 또한 거실에 널브러져 있는 둘째 여동생의 걸옷을 보더니, 많은 피난물건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동생의 옷을 챙기는 장면이 나온다.

좁은 대나무 숲길을 향해 걸음을 재촉하던 그가 무슨 생각이 났는지 도로 집으로 달려갔다. 거실로 뛰어 들어가 어느 구석에선가 본 기억이 있는 오래된 가족 앨범을 집어 들었다.

(각주1,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2005), p.107)

淑世は、細い竹林の道に向かって歩き始めたが、ハッと気がついて、家に走って戻った。急いで茶の間に入ると、淑世は見覚えのある古い家族のアルバムを取り上げた。それをしっかりと腕に抱えて、家を後にした。

(각주4, 요코·카와시마·왓킨스(2013), p.81)

혼자 피난길에 오른 주인공의 친오빠인 히데요는 문득 하늘을 줄 지어 날고 있는 기러기 무리들을 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감정이입을 하면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온다. 그는 본인 자신도 피난길인 중임에도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여동생들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역경을 받드시 헤쳐 나아가야겠다고 굳은 다짐을 한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따뜻한 곳을 제공해줄 고국으로의 피난길을 재촉하는 장면들이 작품 속 중간 중간에 나오고 있다.

V자 모양으로 줄을 지은 기러기들이 따뜻한 곳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나도 저 기러기들 중 하나라면 얼마나 좋을까.

(각주1,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2005), p.162)

雁はVの字になって、どこか暖かいところへと向かっていった。皆、楽しそうに鳴きながら飛んでいった。淑世は自分がそのうちの一只であつたらいいのになあと思ったが、……

(각주4, 요코·카와시마·왓킨스(2013), pp.126-127)

‘어떻게 해서든 이 역경을 헤쳐 나가야 한다.’ 어머니와 동생들 생각이 간절했다.

(각주1,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2005), p.171)

‘어머니와 동생들도 어찌면 모진 고생을 하고 있을지 몰라. 무슨 일이 있어도 서울까지 가야 해!’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다 살아 계신지조차 알 수 없는 아버지 생각도 났다.

(각주1,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2005), p.172)

「僕はこれを乗り越え生き延びなければいけない」「母と妹たちに会いたい」「三人とも、苦勞してゐるに違いない」「京城までたどり着かなければ!」淑世は、そう自分自身に言い聞かせた。連絡が途絶えた遙か遠くにゐる父への思いも込み上げてきた。

(각주4, 요코·카와시마·왓킨스(2013), p.133)

주인공의 친오빠인 히데요뿐만 아니라, 주인공 자신도 가족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을 바탕으로

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에너지로 삼고 있다. 주인공들은 히키아게를 통해 조선의 나남에서 서울을 거쳐 부산에서 배를 타고 고국인 교토까지 힘겹게 돌아왔지만, 주인공은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들에게 왕따와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 소외된 주인공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이를 통한 외로움을 주먹을 쥐거나 손가락을 세계 깨무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장면이 나온다.

나는 주먹을 꼭 쥐었다. 어머니와 언니를 생각하며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 엄지손가락을 세계 물었다. (각주1,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2005), p.192)

.....연신 뉘아내는데도 눈물은 주체할 수 없이 계속 흘렀다. 어머니와 언니 생각이 간절해졌다. 아버지와 오빠도 너무 그리웠다. (각주1,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2005), p.195)

左手でげんこつを作り、母や好と別れたさみしさをこらえるために、出来るだけ強く親指を噛んだ。 (각주4, 요코·카와시마·왓킨즈(2013), p.148)

.....また涙が込み上げてきた。母や好だけでなく、父や淑世にも、とても会いたかった。 (각주4, 요코·카와시마·왓킨즈(2013), pp.150-151)

특히 『요코 이야기』 속에서는 주인공의 어머니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작가 가와시마 왓킨스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이기에 더 그러해 보일 수도 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이 반전 작품이라기보다는 ‘조선인에 대한 강한 편견 및 선입견’과 함께 ‘가족애’에 대한 내용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작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언니가 오거든 깨우렴, 막둥야.” 이상한 일이었다. 그 순간 나는 갑자기 훌쩍 커버린 느낌이 들었다. 이제는 내가 어머니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한순간 깨달은 것이다. 내 외투를 끌어당겨 어머니의 시린 어깨를 덮어주었다. (각주1,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2005), p.209)

어머니의 고개가 한쪽으로 푹 꺾였다. 오른팔도 축 늘어지더니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도 알고 있었다. 나는 목이 터져라 비명을 질러댔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큰 소리로 영영 울면서 나는 계속 소리를 질렀다.

(각주1,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2005), p.210)

.....어머니와의 마지막 순간을 위해 언니와 나는 젖은 천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닦고, 머리카락도 가지런히 빗겨드렸다.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다. 어머니는 여전히 전시(戰時) 복장인 국민복을 입고 있었다. (각주1,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2005), p.213)

.....일본에서는 시신을 완전히 태우지 않는다.¹⁵⁾ 우리는 나남에서부터 줄곧 가져왔던 나무젓가락으로, 이제는 몇 개의 찌로만 남겨진 어머니의 유골을 휴대용 식기에 담았다. 나는 가슴이 미어지듯

룩 울었다. 어머니! 어머니! (각주1,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2005), p.217)

「好が来たら起こしてね」突然、私は大人になった気がして、急に母を守ら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使命感に 駆られた。そして、急いで코ートを脱ぎ、やせ細った母の肩にかけた。

(각주4, 요코·카와시마·왓킨스(2013), p.162)

……そう言うと、母の頭は私の膝からずり落ち、そして右腕も落ちた。母はそのまま動かなくなった。

何が起こったか、私にも分かった。私は、絶叫した。「お母様、お母様が死んだ! お母様が死んだ!」そしてしばらく泣き叫び続けた。 (각주4, 요코·카와시마·왓킨스(2013), p.163)

……羅南からずっと持ってきた箸で私たちは丁寧に母の小さな遺骨を飯盒に入れた。私はむせび泣いた。ああ、お母様! (각주4, 요코·카와시마·왓킨스(2013), p.169)

아직 소식조차 알 수 없는 아버지와 오빠에 대한 그리움과 히키아게로 쇠약해져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는 장면이다. 주인공의 가족과는 대조적으로 한집에 모든 가족들이 모여 생활하는 아이들의 모습과 웃음소리가 대비되면서 주인공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의 척도가 극대화되는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 그러한 와중에 언니가 주인공을 먹여 살리기 위해 구두땀이 일을 해온 사실을 알고 오열하게 된다. 주인공의 눈물 속에는 피난길 와중에 언니와 티격태격 싸우고, 언니가 주인공을 정말로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철없는 모습에 대한 뉘우침과 반성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리워 견딜 수가 없었다. 하루 빨리 아버지가 돌아오셨으면. 아버지의 그 넓은 품에 안길 수 있었으면……우리도 언제쯤이면 남들처럼 아버지, 오빠와 함께 살 수 있을까. 자기 부모님, 형제자매들과 함께 한집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은 얼마나 좋을까. 식사 때마다 내게는 다른 집들의 행복한 모습과 유쾌한 웃음소리가 보이고 들리는 것 같았다.

(각주1,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2005), p.242)

……그 동안 언니는 구두땀이 일을 하면서 나를 먹여살려온 것이다. 시린 손을 호호 불어가며 지금 저렇게 버는 돈을 언니가 오늘 저녁 어디에 쓰려는 것인지 짐작이 갔다. 새해를 맞아 맛있는 설음식들을 장만하고 싶었으리라. 아, 언니! 나는 북받치는 눈물을 삼켰다.

(각주1,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2005), p.243)

……私は父と母が無性に恋しくなり、父が無事に帰って来て、大きな腕で私を抱きしめて欲しい、と願わずにはいられなかった。……いつになったら父や淑世と普通の生活が送れるのだろうか、と思った。どれだけ両親や兄弟姉妹と暮しているクラスメートを羨んだことだろう。彼

15) As I said, cremation is different in Japan, and not all of the body was destroyed. (각주2, Watkins, Yoko Kawashima(1994), p.126)

女たちが温かいテーブルを囲んで幸せそうに笑っているのが、手に取るように分かった。

(각주4, 요코·카와시마·왓킨즈(2013), p.188)

……好はこうして私を養ってくれていたことを。そして今も、好はおせち料理や、柔らかい餅を買って新年を迎えるために頑張っているのだ。ああ、お姉様! 私は胸がいっぱいになって、涙がこらえられなかった。

(각주4, 요코·카와시마·왓킨즈(2013), p.189)

히키아게와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언니와 둘만의 생활고를 통해 주인공은 점차 성숙해져 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던 중, 주인공은 언니를 도와주기 위해 상금을 타기 위한 수필 공모전에 응모하게 되고, 그것이 당선을 하게 된다. 수필 제목은 ‘타인에 대한 이해심 (Understanding/理解すること)’이지만, 여기에서의 인내심에 대한 대상으로 ‘조선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작품 속에서 엿볼 수 있다. 그러하기에 『요코 이야기』 작품을 반전 작품이라고 보기에는 무리한 요소들이 많으며, 오히려 히키아게 과정과 그 이후의 ‘가족애’에 대한 작품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한 이유이다.

……급기야 신문을 집어 들고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중고등부 / 사가노 여학교생 일등 차지’. 머리기사에는 이렇게 써어 있었다. 내가 쓴 수필 제목인 ‘타인에 대한 이해심’과 나란히 내 이름이 선명하고 커다랗게 인쇄되어 있었다.¹⁶⁾ 감격에 찬 나는 마음속으로 통쾌하게 웃고 또 웃었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환호성이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기 때문에 주먹만 꼭 쥐고 있었다. 언니가 얼마나 좋아할까!

(각주1,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2005), p.256)

……それから、新聞を手にとった。“第二部門、第一位女学生受賞”という見出しが付いていた。作文の題名『理解すること』と共に私の名前が大きくはっきりと載っていた。私はその場でやった! と叫びたいのを、拳を握りしめて我慢し、心の中で歓喜の声を上げていた。好がどんなに喜ぶか、……

(각주4, 요코·카와시마·왓킨즈(2013), p.201)

2.3 조선인관

2.3.1 조선인에 대한 일본인의 묘사

작가 가와시마 왓킨스는 『요코 이야기』 속에서 ‘타인에 대한 이해심’이라는 수필로 공모하여 수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주인공은 ‘조선인에 대한 이해심’에 대해서는 조금도 발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16) “From Group 2, Sagano Girls’ School Student Sweeps Field”, said the headline. There was my name, printed large and clear, with the title of my essay, “Understanding”. (각주2, Watkins, Yoko Kawashima(1994), p.154)

“게다가, 육군 병원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강제로 조선인들의 논밭을 빼앗고 있다는 구나. 막둥아, 북조선 사람들이 ‘반일 공산군’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단다.”

조선은 일본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다. 그래서 조선인들은 일본인들을 미워했으며, 전쟁에 대해서도 달가워하지 않았다. (각주1,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2005), p.27)

「陸軍は軍の病院を拡大するために、力尽くで朝鮮から農地を奪ったのよ、小っちゃいの。だから朝鮮は抗日グループという組織を作ったと聞いたわ」

朝鮮人たちは大日本国に統治されていたために、日本人を嫌い、戦争を快く思っていなかった. (각주4, 요코·카와시마·왓킨즈(2013), p.18)

“하나, 둘, 셋, 넷!” 조선말로 커다랗게 구령을 붙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나, 둘, 셋, 넷!” 그들은 우리 쪽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너무도 무서워 움짱달썩할 수조차 없었다. (각주1,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2005), p.52)

“조선인들이 틀림없어. 반일 공산군 말야.” 언니가 속삭였다.

그때 또 한 번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만! 모두 뛰어서 강변으로 달려간다. 이제부터 적들을 죽이는 연습을 할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적이란 일본인이 틀림없을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

(각주1,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2005), p.53)

「イル(一)、イー(二)、サム(三)、サー(四)」朝鮮語の力強い掛け声であった。

「イル、イー、サム、サー」彼らは私たちのすぐそばまで来ていた。私は見じろぎひとつしなかった。

「彼らはきっと反日朝鮮軍よ」と好がささやいた。「止まれっ!」と、また掛け声がかかった。

「全員川岸まで走れ! 敵を殺す訓練をする」

『敵』というのは私たち日本人のことだと、私にも分かった。

(각주4, 요코·카와시마·왓킨즈(2013), p.39)

“저 기차를 탈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말했다.

조선인 역장이 우리를 쓱 훑어봤다. 그의 눈길이 어찌나 차갑게 느껴지던지 나는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각주1,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2005), p.58)

「背負乗車の許可をいただいているのですが」そう母が言うと、朝鮮人の駅長は私たちをじろじろ見た。私はその視線の冷たさに身震いした. (각주4, 요코·카와시마·왓킨즈(2013), p.42)

작가는 고국인 일본의 식민지배로 인해 조선인들이 일본 피난민의 고통보다 더한 끔찍한 고통을 겪었던 아픔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해하려고 시도조차 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원인은 생략한 채,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을 ‘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

만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조선은 오랜 기간 동안 일본의 식민지배 아래에 있었으며,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을 미워하고 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일본 혹은 일본인이 명백한 역사의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작품 속에서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다음의 내용 또한 일본인을 미워하는 조선인과 일본인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조선인들에 관한 것이다.

사방을 헤매던 언니의 눈앞에 옥수수밭 하나가 눈에 띄었다한다. 생각지도 못한 음식으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언니가 옥수수 몇 단을 막 뽑아 들었을 때였다. 갑자기 어디선가 옥수수밭 주인이 나타나 언니를 붙잡았다. 그는 언니에게 일본말로 욕을 해대며 옥수수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했다.

조선말을 능숙하게 할 줄 알았던 언니는, 자기는 일본 사람이 아니라고 둘러댔다. 어머니와 동생이 굶주리고 있으며, 게다가 동생은 부상을 당해 아파하고 있다고 울먹거렸다.

……그는 일본인을 미워하는 사람이었다. 채소를 훔쳐가는 도둑을 잡기 위해 그리잖아도 마침 땅을 보고 있던 중이라 했다. 일본이 전쟁에 지는 날은 참 경사스러운 날이 될 거라고 말하면서 농부는 땅에다 침을 뱉 뱉었다. (각주1,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2005), p.127)

好は小川を探しているうちにトウモロコシ畑を見つけたのである。好には、母と私を驚かすために両手いっぱいのトウモロコシを持ってくることしか頭になかった。ところが、朝鮮人の農夫に捕まってしまった。彼は野菜泥棒を待ちながら横になっていたのだ。そして好に向かって、「畜生、日本人!」と呼びトウモロコシを降ろせ、と言った。好は流暢な朝鮮語で、自分は日本人ではないと否定した。妹があげがをしていて、母が妹に付き添っていると話した。……その農夫は日本人を毛嫌いしていた。

「やつらが戦争に負けたら、その日はすばらしい日になるだろう」そう言って地面に唾を吐いた。

(각주4, 요코·카와시마·왓킨스(2013), p.98)

가까운 마을에서 이발소를 하며 살아온 이야기, 더 이상은 살 수가 없어 조선인 친구에게 이발소를 팔았고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일본으로 돌아가는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조선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뒤로는 편안하게 잠들 수가 있어야 말이지요”

(각주1,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2005), p.130)

すると、彼は近くの町にあった床屋を朝鮮人の友人に売り、親類と一緒に日本に帰るところだ、と話した。「朝鮮人が日本人を攻撃し始めたので、町にいっても安心して眠ることが出来ない」

(각주4, 요코·카와시마·왓킨스(2013), p.100)

『요코 이야기』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조선인을 사악한 사람, 강간자, 폭행자로 묘사

한 내용들이다. 특히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배한 역사적 배경 설명 없이 조선인을 일본인의 가해자로 묘사하고 있다. 다음은 작품 속에 묘사되어 있는 일본인에 대한 조선인의 성희롱 장면 중 하나이다. 조선인의 성희롱 발언 직후, 미군의 폭격기에서 발사된 미사일의 파편이 몸에 박혀 인민군들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된다.

이제 그만 떠나야겠다고 주섬주섬 식기들을 챙기고 있을 때였다. 인민군 군복을 입은 군인 세 명이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일어서!” 한 군인이 소리쳤다. 그가 기관총을 우리 앞에 들이댔다. 다른 두 명도 마찬가지로였다. 다리가 후들거려 간신히 일어섰다. 나는 어머니에게로 좀 더 다가갔다. “움직이지 마!” 군인들이 소리쳤다. 입안이 마르기 시작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 “거기 있는 것들은 다 뭐야?” 북쪽 사투리를 쓰며 언니가 대답했다. “우리 소지품들이야요.” 군인들이 일제히 언니를 쳐다보았다. “너는 몇 살이냐?” 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데리고 놀기에 적당히 자란 것 같은데.”

(각주1,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2005), p.91)

私たちが後片づけをしていると、どこからともなく突然、三人の共産軍が、私たちの前に立ちはだかった。私たち三人は恐怖で身動きできなかった。「立て」一人の兵隊がどなった。彼は私たちに銃を向けていた。他の二人も同じであった。私たちは立った。私は母の方に近づいた。「動くな!」と彼らは怒鳴った。私の口は乾いてしまい、膝がガクガクとして、立っているのがやっとだった。「ここにあるのは何だ?」「私たちの所持品です」好は北部なまりの朝鮮語で答えた。兵隊は三人とも好を見ていた。「お前はいくつだ」好は答えなかった。「今夜楽しむには、丁度いい年頃だな」と一人は言った。

(각주4, 요코·카와시마·가킨즈(2013), pp.68-69)

인민군 군복을 입은 군인 세 명이 주인공의 언니를 관심 있게 쳐다보면서 오늘밤 즐기기에 적당한 나이라며 성희롱하는 장면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주인공의 언니가 북쪽 사투리를 쓰면서 대답을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인민군들이 조선인과 일본인 여자아이들을 가리지 않고 성노리개로 여겼다고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남에서 온 다른 세 친구와 함께 히데요는 조립된 기관총들을 상자에 꾸러 넣고 있었다. 테두리를 금속으로 단단히 두른 나무 상자였다. ……세 친구가 화장실로 들어갔을 때, 갑자기 어디선가 우레 같은 고탈 소리가 나더니 인민군들이 병기창 안으로 뛰어들었다.

(각주1,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2005), p.97)

……인민군들도 마구 총을 쏘아댔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쏜다!” 서툰 일본말로 명령하는 소리가 들렸다. 조선인이구나.

(각주1,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2005), p.98)

……“포도들을 후송한 다음 무기들을 챙길 것이다. 시체들을 다 확인하라. 만약 아직도 숨 쉬고

있는 놈이 있으면 싸버려!” (각주1,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2005), p.99)

……“문을 잠가라. 무기들을 바깥으로 다 옮긴 다음 다이너마이트로 건물을 즉시 폭파시켜라.”

(각주1,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2005), pp.100-101)

そのとき淑世は、羅南出身の三人の級友と、組み立てられた銃を内側が金属張りの分厚い木箱に詰める仕事をしていた。……正一、誠、真蔵の三人が便所に消えたちょうどそのとき、突然、共産軍の兵隊たちが工場に入ってきた。……すぐさま、兵隊たちは反撃した。

(각주4, 요코·카와시마·왓킨즈(2013), p.74)

……「動くな! 撃つぞ」と下手な日本語で命令する声がした。朝鮮人だ、と淑世は思った。

……「我々は捕虜を收容所まで連れ!」 (각주4, 요코·카와시마·왓킨즈(2013), p.75)

……「鍵を閉めろ」隊長はそう言うと、「武器を外へ運び出し、ダイナマイトを持ってきて、すぐ建物を爆破しろ」と続けた。 (각주4, 요코·카와시마·왓킨즈(2013), p.76)

『요코 이야기』에서는 조선인과 인민군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채, 혼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툰 일본말을 사용하는 조선인들이 일본인 시체들을 툭툭 치면서 확실하게 죽였는지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흑여 숨이 조금이라도 붙어 있으면 확인사살하고 있는 장면이다. 끝내 마무리는 다이너마이트로 건물까지 폭파시켜버리는데,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을 흔적도 없이 모조리 다 죽이는 것으로 강조하는 것도 모자라, 다음과 같이 작품 속 인물의 대사 속에서 선량한 조선인들까지 학살하고 있다고 직접 언급하고 있기도 하다.

“……여기는 지금 일본인들을 다 죽이고 있잖아. 너무 무서워.” 훌쩍거리면서 마코토가 말했다.

“그래, 그러자. 근데 일본 교복을 입고는 마을을 빠져나가지 못할 거야.”

(각주1,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2005), p.108)

……“방법이 하나 있어. 우리 식구랑 친하게 지냈던 이씨 아저씨네 집으로 가는 거야. 몇 년 동안이나 우리 집에서 성실하게 일을 해준 분들이거든. 조선 사람이긴 하지만 공산당은 아니야. 틀림없이 우리에게 옷을 빌려줄 거야.”

그러나 막상 이씨 아저씨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모두 할 말을 잃고 말았다.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에 이미 부패하기 시작한 이씨 아저씨와 아주머니의 시체를 발견한 것이다. 코를 찌르는 악취가 사방으로 퍼지고 있었다. 같은 조선인만큼은 무사하리라 생각했는데. 히데요가 울부짖었다. “나쁜 놈들! 우리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값진 물건을 다 훔쳐갔어. 이제는 선량한 사람들까지 모조리 학살하고 있잖아!” (각주1,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2005), p.109)

誠は泣きながら鼻をすすった。「……奴等は日本人を殺しているんだ、怖いよ!」

「よし、一緒に行こう!」と淑世は言った。「でも、日本の学生服ではこの町から逃げることは出来ないな」 (각주4, 요코·카와시마·왓킨즈(2013), p.82)

……「よし。俺の家族の友達李さんのところへ行こう。彼らは俺たち家族のために何年も誠実に働いてくれた。朝鮮人だけど、共産主義者ではない。きっと俺たちに服を貸してくれるだろう」だが、夏の暑さで腐り始めていた李さん夫婦の死体を見つけたとき、四人の青年たちは、最初、愕然として物も言えなかった。その死臭は鼻につんときた。淑世らは、朝鮮人ならば安全だろうと思っていたのだ。

淑世は、怒って叫んだ。「畜生、俺の家は片っ端から荒らされ、貴重品を盗まれた。共産主義者は善人をも惨殺するのか」
(각주4, 요코·카ワシ마·ワトキンズ(2013), pp.82-83)

그러나 작품 속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고한 조선인을 무자비하게 죽인 것이 아니라, 일본인 밑에서 급여를 받으며 동포보다 본인의 안위를 먼저 챙긴 조선인을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 또한 『요코 이야기』에서 논란이 된 부분이며, 조선인을 강간자로 묘사한 내용이다. 특히 작품 속에서는 강간자를 지칭할 때 인민군이 아닌 ‘조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작가의 혐한에 대한 인식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곳이기도 하다.

오 주째 서울에 머물고 있던 어느 날이었다. 겁에 질려 창백한 얼굴로 달려온 언니가 소리쳤다. “서울을 떠나야겠어요, 어머니. 조선 남자들 여러 명이 숲으로 여자들을 끌고 갔어요. 거기서 한 여자가 강간당하는 걸 봤어요” 언니는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각주1,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2005), pp.144-145)

私たちが京城に来て五週間経ったある日、好が深刻な事態を知らせた。

「私たちは京城を出なければいけない。朝鮮人の男たちが、藪の中へ女の人たちを引きずって行くのを見たし、若い女性に乱暴しているのも見たわ」好は震えていた。

(각주4, 요코·카ワシ마·ワトキンズ(2013), pp.111-112)

앞서 피난길에서 주인공들이 이미 성희롱을 당한 상황에서 실제로 조선인 남성들에게 강간당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된다. 이후 주인공과 주인공의 언니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가슴에 붕대를 두른 뒤, 죽은 시체의 군복을 벗겨 환복을 하고 피난길에 다시 오른다.

한번은 해방을 자축해 마신 술에 곤드레만드레 취한 조선 남자 몇 명이 우리를 빙 둘러쌌다. 한 남자가 앞뒤로 몸을 비틀거리면서 언니를 붙잡고 늘어졌다.

“야, 너 남자야, 여자야?” 언니가 대답했다. “남자예요.”

“여자 목소리처럼 들리는데, 어디 한번 만져보자.” 언니는 태연한 표정으로 대꾸했다. “만져봐요” 나는 애가 타 죽을 지경이었다. 제발 누군가 달려와서 우리를 좀 구해주었으면. 제발. 그러나

누구도 젊은 여자들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다. 혹시 조선 사람들을 더 화나게 만들면, 창고와 창고 안의 사람들까지 한꺼번에 몽땅 불태울지도 모른다고 겁을 냈기 때문이다. 조선인들은 수십 년간 일본의 지배를 받다가 이제 자유의 몸이 된 것이다. 한 남자가 언니의 가슴에 커다란 손을 집어넣었다.

“맛잇하잖아. 사내놈들은 흥미 없어.” 남자들은 다시 사람들 틈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자기들을 만족시킬 여자들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러다 누구라도 하나 눈에 띄면 어딘가로 데려갔다. 귀를 찢을 듯한 여자들의 비명이 허공에 메아리쳤다.

(각주1,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2005), pp. 153-154)

独立を祝いながら、酔った朝鮮人が私たちの囲りに来た。一人が前後にふらつきながら好に執拗に迫った。

「お前は男か女か?」「男だ」と好は答えた。

「女の声のようだ。触らせろ」「触ってみろ」好は言い返した。

私は、どんなに、誰か助けに来てくれないか、と祈っただろう。

しかし、他の人々は朝鮮人をこれ以上怒らせると、倉庫ごと中にいる日本人を焼き払うかもしれないと恐れていたのです、誰もそういった若い女性たちを助けようとはしなかった。

酔った朝鮮人は大きな手を好の胸に当てた。「平らだ」彼は言った。「男には興味がない」

男たちの集団は去ったが、彼らは悦楽を求めて人々の間をよろよろ歩き、そして娘たちを見つける度に外へ引きずり出した。たびたび女たちの悲鳴が響いた。

(각주4, 요코·가와시마·왓킨스(2013), pp.117-118)

물이 졸졸 흐르는 작은 냇가를 지나게 되었다. 물을 좀 마실까 하고 발길을 멈추는데 비명이 들려왔다. 잡초더미 안쪽에서 한 남자가 소녀의 몸을 덮치고 있는 중이었다. 내가 들은 소리는 남자를 떨쳐내려고 거칠게 발길질을 하던 여자가 질러댄 것이었다.

(각주1,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2005), p.155)

小さな小川で水を飲もうと立ち止まったとき、私は泣き叫ぶ声を聞いた。草むらの中で女性の上に乗った朝鮮人がいた。彼女は思っきり男を蹴飛ばしながら、金切り声を上げていた。

(각주4, 요코·가와시마·왓킨스(2013), p.119)

작가는 작품 속에서 조선인 남자들이 폭력적이고 강간을 일삼는 이유로 수십 년간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이제 막 자유의 몸이 되었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다. 이제 막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자유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조선인 남자들의 강간과 폭행성이 분출되었다는 식의 표현은 조선인에 대해 편견과 선입견을 가진 발언임에 틀림없다. 『요코 이야기』의 저자인 가와시마 왓킨스가 자신의 모국인 일본이 조선에게 저지른 잘못을 전혀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 속에 내재되어 있는 험한 인식은 당시 일본에게 식민 지배를 당한 조선인들의 고통과 아픔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조선인들을 화나게 하면 모든 것을 불태울지도 모른다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작품 속에 언급함으로써 인해 편향된 한국인상을 현재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으로 가는 화물선은 일주일만 지나야 온다고 했다. 그러나 한 번에 백 명만 탈 수 있었다. 게다가 일본인들은 총이나 칼 등 무기가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소지할 수 없다고 했다.

(각주1,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2005), p.155)

……마침내 배가 선착장으로 들어왔다. 조선인 관리가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렸다. “아흔일곱, 아흔여덟, 아흔아홉, 백!” 백 명이 채워졌다. 그때 누군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제발 아버지랑 같이 가게 해주세요!” 중년의 일본인 여자였다. “무슨 소리요? 규칙은 규칙인데, 당신네 일본인들도 우리에게 언제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소?” 이 사람도 다른 조선인 관리처럼 사납게 보였다.

“아버지가 너무 늙어서서 저라도 옆에서 보살펴야 합니다. 돈을 더 낼게요, 제발.”

“어쨌든 규칙은 규칙이오”

(각주1,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2005), pp.156-157)

一週間後、貨物船がやってきて百人が日本へ行くことが出来る、と知らされた。私たちはその船に乗るため他の全ての人々と先を争って並んだ。しかし、乗船のためには、日本人は銃やナイフといった危険な武器を渡さなければいけなかった。

(각주4, 요코·카와시마·왓킨스(2013), p.119)

……船がついに埠頭に着くと、朝鮮人の係員が百人を数えた。

「九七、九八、九九、百。ここまで!」その次の女性が叫び声を上げた。「係員さん!」それは中年の日本人女性だった。「どうか父を私と一緒に乗せて下さい」「だめだ。規則は規則だ」他の係員たちと同じように、その係員も、私には意地悪に思えた。

(각주4, 요코·카와시마·왓킨스(2013), p.120)

「お前たちの政府が、いつも我々に言ってきた言葉だ」「父は高齢で私が世話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お金を差し上げますから、どうかお願いします」「規則は規則だ」

(각주4, 요코·카와시마·왓킨스(2013), p.121)

앞서 언급했듯이, 『요코 이야기』 속에서 조선인에 대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내용은 조선이 일본으로부터의 식민지배에서 해방된 직후, 마치 조선인을 가해자인 것처럼 일본인을 피해자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선인 관리인들의 인상이 사납다는 편견과 선입견이 나타나 있기도 하다. 또한 일본인들이 조선인들한테 한 것처럼 규칙을 앞세워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을 괴롭히는 것이 마치 식민지배에 대한 단순 앙갚음이나 보복이

라는 일환으로 작품의 군데군데 묘사되어 있어, 작가의 왜곡된 역사인식과 혐한에 대한 인식이 오랜 시간 고착화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조선총독부로부터 정부를 이양 받은 조선건국동맹의 여운형은 총독부와 교섭을 통해 일본인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였다. 이는 정부를 이양 받은 후, 방송을 통해 일본인들의 집단 학살을 막아주기까지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조선총독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1945년 8월 16일부터 같은 해 8월 23일까지 조선 전역에서 발생한 공식적인 폭행사건은 913건이었다. 물론 당시 혼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건이 접수된 것은 아닐 테지만, 일본인보다 조선인에 대한 피해가 더 많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는 일본인 상관은 먼저 피신하였으며, 앞잡이 노릇을 한 조선인들에 대한 분노가 더 컸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¹⁷⁾

“다 죽었어.” 인민군들의 목소리가 그가 있는 곳까지 들려왔다.

“자, 짐 보따리를 뒤져봐.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모두 챙기라고” 또 다른 목소리가 말했다.

“옷을 다 벗겨버려. 금니를 하고 있는 놈이 있으면 이도 다 뽑아버리고”

히테요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각주1,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2005), p.166)

「みんな死んだ!」朝鮮語を話している声が上まで届いた「所持品を調べろ。貴重品は全部」と違う声がした。「裸にしろ。金歯をしていたら、歯を引き抜淑世は恐ろしさで震えていたが、ただじっと待っていた。 (각주4, 요코·가와시마·왓킨스(2013), p.129)

위와 같이 『요코 이야기』 작품의 군데군데 조선인 혹은 인민군의 인정사정없는 잔인함이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조선인들을 폭발시킨 분노의 대상은 보통의 일본인들보다는 대개 일본의 통치 시설과 친일파, 그리고 일본인 경찰관이었다. 물론 해방을 전후하여 일본인이 다소 불이익을 받았을 가능성은 있지만, 일제강점기에 조선과 조선인이 받은 피해를 생각한다면 ‘일본인도 피해자다’라는 논리는 일본인이 결코 가볍게 입에 담을 수 있는 말의 성격이 아니다. 그럼에도 작가 가와시마 왓킨스는 『요코 이야기』 속에서 서울과 부산에서 2개월 가까이 생활하는 동안 굶주림과 조선인으로부터의 강간과 폭행 등만을 주로 언급하고 있다.

17) 참고로 소련군이 주둔했던 이북지역은 미군이 주둔한 이남지역과는 매우 달랐다. 소련군은 점령지에서 현지조달 및 수탈을 자행하였는데, 이는 한반도에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점령지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일화로 독일이 서쪽으로는 연합군에게, 동쪽으로는 소련군에게 공격을 받고 있었는데, 소련에게 점령당하거나 잡히면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수탈과 강간을 당했기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소련군에게 저항을 한 역사적 사례가 있다.

또한, 광복이후 일본인들의 삶에 대해서는 이연식의 「해방 후 한반도 거주 일본인 귀환에 관한 연구 : 점령군·조선인·일본인 3자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2009) 박사학위논문과 『조선을 떠나며 : 1945년 패전을 맞은 일본인들의 최후 : 역사 논픽션』(2012)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3. 결론

『요코 이야기』 속에 전쟁을 비판하는 반전(反戰)적인 메시지가 극히 일부 들어있다고는 하지만, 작품의 전체적인 흐름은 평화에 대한 메시지보다는 ‘조선인에 대한 강한 편견 및 선입견’과 함께 가족애에 대한 내용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주변 국가들과 관련된 ‘태평양전쟁’이라는 민감한 배경을 작품의 소재로 다루고 있으면서 이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어 나타나 있다.

이렇듯 『요코 이야기』는 작가 자신이 겪은 고통을 강조하고 있는 나머지, 작가의 모국인 일본으로 인해 그보다 더한 고통을 겪었던 조선인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본이 일으킨 전쟁들이 ‘국가의 소행일 뿐 시민들은 무고하다’라는 말은 작가로서 무책임한 발언이며, 일본의 많은 시민들이 일본 정부의 침략 전쟁을 찬성하고 원동력을 공급한 것 역시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통의 일본인도 피해자’라고 작품 속에서 일관하고 있는 것만으로 당시 일본의 만행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 속에서 일방적인 조선인에 의한 박해만을 언급하고 있는 대목들은 선불리 정치적인 판단을 내비치고 있는 모습으로 오인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실제로 그동안 일본에서 번역판이 나오지 않다가 2013년에 일본어 번역판이 나온 이유들 중의 하나로 태평양전쟁 패전 후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회색과 일본의 역사왜곡의 도구로 『요코 이야기』가 활용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일본어판 번역과정에서 “기억에 없는 내 나라 일본은 4년간이나 미국과 영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부분이 통째로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어 번역판이 나온 2013년은 일본의 정치 및 문화적으로 왜곡된 민족주의가 고조된 시기이자 일본 거리에서의 험한 시위가 가장 많이 일어났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단순한 의구심만으로 넘기고 갈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 진다.

마지막으로, 작품 속의 피해자로 등장하는 요코는 가해국 국민 출신의 요코이기도 하다. 즉 작품의 의도와는 상관없을지라도 결과적으로는 현재의 요코에게 있어, 한국인과 그들의 조상들은 나쁜 피해자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작가는 작품을 통해 한국인들을 향한 혐한으로 제2의 가해를 함으로써 편향된 한국인상을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參考文獻】

손중업(2005)『『요코 이야기』가 불편한 몇 가지 이유』『창작과 비평』2007년 여름호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2005)『요코 이야기: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 장편소설』문학동네
 윤상인 외(2006)『일본문화의 힘: 세계는 왜 J컬처에 열광하는가』서울: 동아시아
 윤상인(2009)『문학과 근대와 일본』문학과 지성사
 이연식(2009)『해방 후 한반도 거주 일본인 귀환에 관한 연구: 점령군·조선인·일본인 3자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연식(2012)『조선을 떠나며: 1945년 패전을 맞은 일본인들의 최후: 역사 논픽션』서울: 역사비평사
 요코·카와시마·왓킨스(2013)『竹林はるか遠く: 日本人少女ヨーコの戦争体験記』株式会社ハート出版
 米山リサ(2008)『日本植民地主義の歴史記憶とアメリカ:『ヨウコ』をめぐって』『東アジア歴史認識論争のメタヒストリー:『韓日、連帯21』の試み』青弓社
 Watkins, Yoko Kawashima(1994) *So far from the Bamboo Grove: by Yoko Kawashima Watkins 1st Beech Tree ed.*, Beech Tree Books

논문투고일 : 2018년 09월 20일
 심사개시일 : 2018년 10월 17일
 1차 수정일 : 2018년 11월 12일
 2차 수정일 : 2018년 11월 18일
 게재확정일 : 2018년 11월 19일

 <要旨>

『요코 이야기(竹林はるか遠く)』 고찰

- 일본인관과 조선인관을 중심으로 -

노윤선

우리나라에서 2005년에 번역 출간된 『요코 이야기』는 2007년에 관심을 불러일으킨 작품이기도 하다. 이 작품은 1986년 4월 미국에서 *So far from the Bamboo Grove*라는 제목으로 제일 먼저 출판되었으며, 작자의 히키아게(引揚芥) 체험을 바탕으로 쓴 자전 소설이다. 히키아게는 일본의 태평양전쟁 패전 후, 국외에 살고 있던 일본인들이 고향으로 귀환하는 역사 사실을 일컫는다. 일본어판은 2013년 7월 19일이 되어서야 『竹林はるか遠く：日本人少女ヨココの戦争体験記』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지만, 중국에서는 출판이 금지되었다.

『요코 이야기』 속에 전쟁을 비판하는 반전(反戰)적인 메시지가 극히 일부 들어있다고는 하지만, 작품의 전체적인 흐름은 평화에 대한 메시지보다는 ‘조선인에 대한 강한 편견 및 선입견’과 함께 가족애에 대한 내용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요코 이야기』는 작가 자신이 겪은 고통을 강조하고 있는 나머지, 작가의 모국인 일본으로 인해 그보다 더한 고통을 겪었던 조선인들의 아픔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보통의 일본인도 피해자라고 작품 속에서 일관하고 있는 것만으로 당시 일본의 만행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 속에서 일방적인 조선인에 의한 박해만을 언급하고 있는 대목들은 선불리 정치적인 판단을 내비치고 있는 모습으로 오인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실제로 그 동안 일본에서 번역판이 나오지 않다가 2013년에 일본어 번역판이 나온 이유를 중의 하나로, 태평양전쟁 패전 후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회색과 일본의 역사왜곡의 도구로 『요코 이야기』가 활용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일본어판 번역과정에서 “기억에 없는 내 나라 일본은 사 년간이나 미국과 영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부분이 통째로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작품 속의 피해자로 등장하는 요코는 가해국 국민 출신의 요코이기도 하다. 즉 작품의 의도와는 상관없을지라도 결과적으로는 현재의 요코에게 있어, 한국인과 그들의 조상들은 나쁜 피해자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작가는 작품을 통해 한국인들을 향한 혐한으로 제2의 가해를 함으로써 편향된 한국인상을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Exploration of *Yoko Story*(*So far from the Bamboo Grove*)

- Focusing on the Japanese Pavilion and the Korean Pavilion -

Roh, Yoon-Seon

In 2005, *Yoko Story* was translated into Korean and published in South Korea. It brought huge interests in 2007. This novel was first published with the English title *So far from the Bamboo Grove* in the United States on April 1986 and this autobiographical novel is based on the writer's direct experience of Hikiagae. Hikiagae refers to the history of returning to homeland by Japanese people living in foreign countries after its defeat in the Pacific War. The Japanese version was published on July 19, 2013 titled with 『竹林はるか遠く：日本人少女ヨココの戦争体験記』, yet its publication was prohibited in China.

Even if small portions of anti-war messages are applied in this novel, the main theme is primarily associated with strong prejudice against Koreans and family love rather than lessons for peace. This novel stresses the writer's director pains, thereby being incapable of understanding the plights of Koreans who had harder times due to his motherland. The misdeeds of the imperial Japan shall not be justified as the writer constantly argues that ordinary Japanese people were victims.

Nonetheless, passages on the persecution solely committed by Koreans are likely to be misunderstood as expressing political viewpoints without discretion. It is doubted that one of major reasons of publishing the Japanese version in 2013 was used for dissolving crimes committed by the Japan after its defeats in the Pacific war and used in this novel, for a sentence “My country in oblivion was undertaking a huge war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for four years” was completely wiped out.

Yoko, depicted as a victim in this novel, was originated from the assaulter. In spite of not being related with the original intention, his character considers Koreans and ancestors as bad-natured victims. In the end, the writer reproduces the image of partial Koreans by attacking and hating Koreans again in this novel.